대신증권 Daishin Securities

2025년 11월 24일 월요일

Morning Meeting Brief

Daishin's VIew

[Daishin's View] 2025 년 11 월 4 주차

- 금리: 금리 인하 사이클 확인하며 점진적 금리하락. 환율: 수급 부담 완화되어야 달러원환율 정상화 차원에서 하향 안정 가능
- 국내증시: 기대와 현실 간 괴리로 인한 변동성 확대, 전략적 비중확대 기회. 글로벌 증시: 새로운 호재 만연, 연말 염두해두고 투자할 때
- 원자재: 러우전 종전가능성. 국제유가보다 러시아산 우랄유 가격 상승 요인. 부동산: 10.15 이후 규제지역 관망세. 비수도권 회복 기대감.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Macro

[Macro] 일본, 불안한 헬리콥터 머니

- 다카이치 총리, 대규모 경기부양책 발표. 적자 국채 발행 불가피
- 일본 시장금리 상승 및 엔화 약세 초래, CDS 프리미엄도 상승
-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일 물가 안정, 미 유동성 공급 재개 시 완화

이하연. hayeon.lee@daishin.com

Strategy

[퀀틴전시 플랜] 하루에 끝난 엔비디아 효과, 연준은 증시 랠리가 부담스럽나?

- 여전히 약한 기술주 투자심리, 외국인 하루 만에 투매전환
- 연준의 매파적 발언, "고평가된 자산가격 급락할 수 있다"
- 위험자산 투자심리 약화, AI 테마업종 일제히 급락

정해창. haechang.chung@daishin.com

Global Strategy

[더 글로벌 레이더 / 11 월 4 주차 전략] 美 12 월 금리 인하 후퇴? 단기 변동성 요인일 뿐

- 12월 FOMC 가까워질수록, 연준 금리 인하 기대 되살아날 전망
- 9월 고용지표 완화적 해석, 10월 민간 노동통계가 고용시장 부진 확인
- 현 미국 증시 '건전한 조정' 막바지 단계. 12.1일부로 QT 중단, 긍정적 요인

문남중. namjoong.moon@daishin.com

Global Strategy

[일본 마켓 레이더 / 11 월 4 주차 전략] 中·日 관계 악화, 장기화될 조짐

- 중국, 다카이치 총리 발언 철회 요구. 일본, 강경한 자제 유지 중
- 158엔대 목전 엔화, BOJ 외환시장 개입 및 일본 경제에 부작용 부각
- 중국, 경제적 압박 지속. 일본 경제와 증시를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 확산 전망

문남중. namjoong.moon@daishin.com

[Initiation] 로보티즈: 대전환의 시대

- 생산가능인구 하락하는 구간에서 제조업의 생산성을 일으킬 피지컬AI
- 제조업에서 피지컬 AI의 핵심 동력은 정밀한 움직임
- 로봇산업은 정부 주도 사업, 장기적으로 정책 드라이브 수혜 가능

이지니, jini.lee@daishin.com

Daishin's View

Daishin Research Center

2025년 11월 4주차

[금리] 국고 3년 2.50~3.00%

美 금리인하 사이클 확인하며 점진적인 금리하락. 韓은 과매도 영역 진입, 반락 기대

미국은 9월 인하 재개 이후 2회 연속 인하. 이후 통화당국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추가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으나, 고용으로 정책 초점이 전환된 가운데 인하 사이클 지속 전망. 한국은 부동산 문제로 금리 인하 사이클 마무리에 대한 우려가 커짐. 이후 인하 기대 약화에 따른 금리 급등과 손절 매물로 과매도 영역 진입. 높아진 금리 레벨에 따른 대기 매수세 유입 기대

[환율] 달러원 환율 1,400~1,500원

수급 부담 완화되어야 달러원환율 정상화 차원에서 하향 안정 가능할 전망

연준 금리인하 사이클 지속에 따른 달러 약세 국면 유효. 미 셧다운 종료된 만큼 지연되었던 경제지표 발표되며 경기 확장세 둔화 조짐 나타날 경우 달러가치 하락 추세 재개 가능. 원화의 경우 여타 통화 대비 과도한 약세가 지속. 펀더멘털 격차나 정책 측면 감안했을 때 약세폭 과도한 만큼, 수급 부담 완화될 경우 하향 안정화 예상

[국내 증시] KOSPI 3,700 ~ 4,250p

앞서간 기대와 현실 간 괴리로 인한 변동성 확대, 비중확대 기회. PER 10배 = 3,800p

미국 금리인하 사이클 확인. Policy Mix 모멘텀 강화로 중장기 상승추세 견고. 다만, 선반영된 금리인하 기대 후퇴. 미국 셧다운 해제 이후 경제지표 결과에 따른 일희일비 불가피. 12월 1일 QT 중단 이후 유동성 환경 개선 예상. 선행 PER 10배(3,800선) 이하는 비중확대 전략으로 전환. 12월 FOMC 회의가 중요 변곡점

[글로벌 증시] S&P500 6,500 ~ 7,000p

새롭게 등장하는 호재 만연, 연말을 염두에 두고 투자할 때

4/4분기 미국 금리 인하는 향후 미국 외 국가들의 통화완화 또는 재정 지출 동참을 자극하면서 유동성 증가가 증시로의 자금 유입을 이끌 것. 미중 갈등 긴장 완화, 美 연말 쇼핑시즌 기대. 양호한 펀더멘탈을 갖춘 미국 지휘 하에서, 유동성 증가 기대가 Non-US 증시로 확산될 것. 위험 확산 및 성장 대응(인도, 중국, 유럽), 주주가치 제고(한국, 일본) 등 긍정적 요인이 상승장 뒷받침

[원자재] WTI 55~65$/bbl.

러-우 전쟁 종전 가능성. 다만, 이는 국제유가보다 러시아산 우랄유 가격 상승 요인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 측과 러-우 전쟁 종전안(초안)마련, 일각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 해제(러시아산 석유 수출 확대)가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될 수 있다 전하면서 유가 상승분 축소. 다만, 제재 해제는 국제유가보다 우랄유, ESPO유 가격↑ 요인.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에도 그림자 함대 통해 수출 지속, 오히려 그간 염가의 러시아산 활용한 중국+인도 정유사에 악재

[부동산] 주택 : 강보합, 상업 : 보합.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 관망세, 비수도권 주요지역 회복 기대감 증가

주택 : 10.15 대책 이후 규제 지역 관망세, 수도권 일부지역 및 비수도권 주요지역 회복 기대감 증가, 세제/공급 변화가 핵심이나 현 정책/제도하에서는 1Q26~2Q26 시기가 변곡점

상업 : CBD 중심으로 예상되는 공급 과잉 전망과 서울 오피스 공실률 증가 및 실질 임대료 정체로 FI 고민은 깊어지는 상황이나 풍부한 수급상황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거래량은 회복세

Macro

일본, 불안한 헬리콥터 머니

- 다카이치 총리, 대규모 경기부양책 발표. 적자 국채 발행 불가피
- 일본 시장금리 상승 및 엔화 약세 초래, CDS 프리미엄도 상승
-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일 물가 안정, 미 유동성 공급 재개 시 완화

Economist 이하연
hayeon.lee@daishin.com

일본, 21.3조엔 대규모 경제대책 발표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첫 경기부양책이 발표됐다.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로, 정부 재정지출 21.3조엔 외에 지방자치단체, 민간 참여 등을 더한 사업규모는 42.8조엔이다. 재정건전성 추구보다 성장 동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언급해온 대로, 대규모 재정지출로 인한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경기 부양책은 1) 생활 안전보장 및 고물가 대응(11.7조엔), 2) 위기관리 투자 및 성장 투자에 의한 '강한 경제' 실현(7.2조엔), 3) 안보 및 외교 강화(1.7조엔)의 세 축으로 시행된다. 앞서 6분기만에 역성장을 발표한 일본 경제의 성장률 회복에 기여할 전망이다. 지난 3분기 일본은 -1.8%(전기비 연율)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대외부문의 성장 둔화 여파가 크게 작용했다.

한편, 정부 의도와 달리 대규모 물가 대응 대책이 오히려 고물가 고착화를 이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당초 정부 전망 보다 경기부양책의 성장 견인 정도에 대한 눈높이는 낮출 필요가 있다. 특히 여느 주요국보다 정부 부채 비중이 높은 일본의 시장금리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경계 요인이다.

진퇴양난 일본은행, 리즈 트러스 모먼트 경계

일본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영국의 '리즈 트러스' 충격을 상기시키고 있다. 지난주 장기물 중심으로 일본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엔화는 약세 흐름을 나타냈다. CDS 프리미엄 역시 상승했다. 최근 미국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미국과 일본의 금리차가 축소되면서 일부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시장 경계도 높아졌다.

아직은 엔화가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미 3%대의 물가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 경제에 엔저가 지속되면서 수입물가를 자극, 추가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될 경우, 일본은행은 금리 인상이나, 대규모 시장 개입이 예상된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든, 금리를 잡기위해 채권매입 재개에 나서든 시장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따라서 금주 발표될 11월 도쿄 지역 물가 및 12월 BOJ 금정위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11월 일본 물가는 엔저 재개 부담에도 기저효과 영향으로 전월 수준의 물가 상승률이 예측된다. 물가 하향 안정이 확인될 경우, BOJ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 한편, 일본 내 정책 혼란 지속에도 미국의 유동성 공급 재개가 빨라질 경우, 최근 유동성 경색으로 인해 확대됐던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은 역시 다소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

Strategy

하루에 끝난 엔비디아 효과, 연준은 증시 랠리가 부담스럽나?

Strategist Jr. 정해창
haechang.chung@daishin.com

Strategist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 여전히 약한 기술주 투자심리, 외국인 하루 만에 투매전환
- 연준의 매파적 발언, "고평가된 자산가격 급락할 수 있다"
- 위험자산 투자심리 약화, AI 테마업종 일제히 급락

여전히 약한 기술주 투자심리, 외국인 하루 만에 투매전환

– 미국 증시, 전일 엔비디아 실적 효과를 반나절 만에 반납.

– 외국인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2.8조 순매도, 전기/전자 업종만 –2.3조원 투매.

– 단기유동성 스트레스 잔존. 11월말 결제수요 집중으로 인한 유동성 부담. 9월, 10월말 연준 단기유동성창구(SRF) 사용급증 등 월말 자금 경색 반복 우려. 하락세가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은 단기 유동성에 민감한 코인 시장

– 위험회피심리와 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로 인해 제한적인 차익 매물에도 주가 급락 전개. CTA 펀드 매물 압력 확대. 다음 주 미국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둔 포지션 정리도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

연준의 매파적 발언, "고평가된 자산가격 급락할 수 있다"

– 12월 금리인하 불확실성 여전. 9월 신규 고용 증가(11.9만건), 실업률 반등(4.4%). 지표 발표 이후 채권금리 하락. 혼조세를 보인 고용지표에도 주요 연준 위원들은 매파적 입장 유지. 신규 고용 증가는 매파적 의견의 근거로 작용 가능하다는 분석. 12월 동결 확률 67%로 우세. 특히,

– 연준 쿡 이사는 주식, 채권, 주택 등의 자산 고평가 우려와 급격한 하락 가능성을 경고. 사모신용과 레버리지 펀드의 위험성 또한 지적하면서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이 연준의 이중 목표 달성 능력을 제약할 수 있음을 고려중임을 덧붙였음. 이는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부작용 우려로 금리 인하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

위험자산 투자심리 약화, AI 테마업종 일제히 급락

–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로 AI 버블 우려가 완화된 것은 사실. 그러나 엔비디아 매출채권 증가에 버블우려 재점화. AI 기업들의 회계 이슈 및 재무 구조 불안정 우려도 여전히 미해결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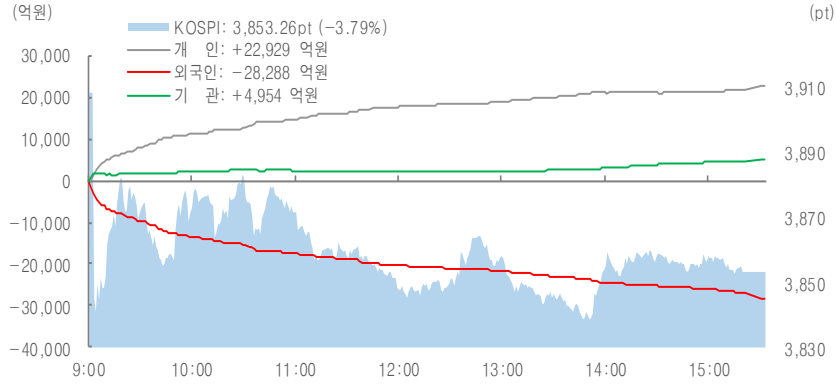
반도체: 삼성전자(–5.8%), SK하이닉스(–8.8%), DB하이텍(–6.8%)

전력기기/원자력: LS ELECTRIC(–12.9%), HD현대일렉트릭(–7.9%)

– **소비재**: 방어주 섹터 비교적 견조, 실적호조 등 반영하며 종목장세

KT&G(+2.7%)와 코스맥스(+3.8%), 영원무역(+3.5%), 케어젠(+14.7%)

KOSPI 투자주체별 수급 및 장중흐름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Global Strategy

美 12월 금리 인하 후퇴? 단기 변동성 요인일 뿐

Global Strategist 문남중
namjoong.moon@daishin.com

- 12월 FOMC 가까워질수록, 연준 금리 인하 기대 되살아날 것
- 9월 고용지표 완화적 해석, 10월 민간노동통계가 고용시장 부진 확인
- 현 미국 증시 '건전한 조정' 막바지 단계. 12.1일부로 QT 중단, 긍정적 요인

20일 미국 증시(S&P500)는 장대음봉 형태로 -1.56% 하락했다. 9월 비농업부문 고용자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시장이 바라보는 12월 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인 데 기인한다. 하지만 12월 FOMC가 가까워질수록 9월 고용지표를 완화적으로 해석하고, 10월 민간 노동통계(ADP 민간고용 3개월 평균, 컨퍼런스보드 노동편차지수, 계속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고용시장 부진을 확인해주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되살아날 것이다.

9월 비농업부문 고용자수는 11만 9천 명 증가로 예상치(5만 명)을 상회하긴 했지만, 고용추세(7~9월)는 6만 2천 명 증가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기 시작한 23년 8월 이후14만 3천 명 증가를 하회하고 있다. 또한 7~8월 비농업부문 고용자수는 기존 수치(7월 7.9만 명 증가→7.2만 명, 8월 2.2만 명 증가→4천 명 감소)가 모두 하향 조정됐다. 9월 실업률은 4.4%로 예상치(4.3%)를 상회하고, 전월(4.3%) 보다 0.1%p 상승했다.

11월 2주차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22만 건, 전주대비 8천 건 감소) 기준, 연속 청구건수는 197.4만 건(전주 대비 2.8만 명 증가)으로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9월 연준의 금리 인하 명분이 고용 둔화였던 만큼, 12월에도 연준은 저조한 고용 결과를 바탕으로 25bp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25년 연준 최종정책금리 중위값 3.6%, 레인지 하단 2.9%).

현 미국 증시는 '건전한 조정' 의 막바지 단계로 11월 마지막째 주 서서히 반등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한다. 12월 1일부로 연준은 22.6월부터 단행해온 QT를 중단하는 점도 큰 맥락으로 보면 단기자금시장 불안을 낮추며 유동성 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 요인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표 1. **이번 주 중요 경제지표 및 이벤트(25.11.24~11.30)**

경제지표 & 이벤트명	국가	일정	전기치	예상치	방향성	내용 및 시사점
9월 소매판매 / 근원	미국	11.25	0.6 / 0.7 % MoM	- / -	- / -	수요 감소 영향 확인 시, 12월 연준 금리 인하 시각 증가
9월 CPI / 근원	미국	11.27	2.7 / 2.9 % YoY	- / -	- / -	통제 가능 수준 물가 범위 해석, 12월 연준 금리 인하 확률 증가
11월 금통위	한국	11.27	2.5 %	-	-	경기 부양보단 부동산 시장 안정 목적 감안 시, 금리 동결 예상

기준일: 25. 11. 21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일자	국가/지역	주요 지표	기간	단위	전기치	예상치	대비
11.24	일본	근로자의 날					
11.25	미국	S&P/CS 20대 도시주택가격지수	9월	% YoY	1.6	-	-
11.26	미국	컨퍼런스보드 소비자기대지수	11월	P	94.6	93.3	▼
	미국	3/4분기 GDP	3/4분기	% QoQ	3.8	-	-
11.27	미국	추수감사절(~28일)					

기준일: 25. 11. 21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Global Strategy

中·日 관계 악화, 장기화될 조짐

Global Strategist 문남중
namjoong.moon@daishin.com

- 중국, 다카이치 총리 발언 철회 요구. 일본, 강경한 자제 유지 중
- 158엔대 목전 엔화, BOJ 외환시장 개입 및 일본 경제에 부작용 부각
- 중국, 경제적 압박 지속. 일본 경제와 증시를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 확산↑

中·日 관계 악화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중국의 일본 여행 및 유학 자제령,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 일본 영화 신규 상영 승인 보류 등 경제적 압박을 높이는 가운데, 중국 측 영향으로 일본 대외무역기구(JEC) 행사도 20여건 가까이 취소됐다. 중국 정부는 20일 베이징에서 열린 양국 국장급 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대만에 대한 기존 원칙적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강경한 자세를 유지 중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 철회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일본 보수 정치권이 오랫동안 공유해 온 안보 인식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2015년 일본은 안보법제 개정을 통해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국가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21일 다카이치 내각은 물가 대응 및 경기 부양을 위해 21조 3천억 엔 규모의 경제 대책을 발표했다. 생활 안정 보장·물가 상승 대책 8조 9천억 엔, 위기관리 투자·성장 투자 6조 4천억 엔, 방위력·외교력 강화 1조 7천 엑 엔 등이다. 또한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위해 '조세특별조치·보조금 재검토 담당실'을 신설하고 정부 지출 점검과 비용 절감을 도모하게 된다.

사나에 노믹스 가동에 따른 주식시장 상승에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정책이지만, 당분간 중·일 관계 악화가 일본 금융시장에 더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외환시장 관련해서, 최근 158엔대 목전까지 올라선 엔화 약세는 24년 4월부터 7월 중순처럼 일본 정부와 BOJ가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160엔대에 근접할 경우 실질임금 등 일본 경제에 대한 부작용이 부각될 수 있어, 중·일 간 긴장 고조는 일본 주식시장에 부정적 요인이 될 것이다. 특히 일본 관광여행업계와 관련해 24년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 소비액은 1조 7천억 엔으로 국가별 소비액 가운데 21% 이상을 차지했다. 中·日 간 긴장이 빠르게 수습되기보다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져 일본 경제와 증시를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이 당분간 확산될 전망이다.

이번 주 중요 경제지표 및 이벤트(25.11.24~11.30)

경제지표 & 이벤트명	국가	일정	전기치	예상치	방향성	내용 및 시사점
9월 PCE / 근원	미국	11.27	2.7 / 2.9 % YoY	- / -	- / -	미발표 시, 12월 연준 통화정책 결정에 대한 시장 해석 혼란 영향
11월 금통위	한국	11.27	2.5 %	2.5 %	-	금리 동결, 원화 약세 일시적 제한 요인. 엔화 영향 커질 전망
10월 산업생산	일본	11.28	2.6 % MoM	-0.5 % MoM	▼	생산용기계공업, 반도체 제조장비 대신 자동차 공업 영향 여부

일자	국가	주요 지표	기간	단위	전기치	예상치	대비
11.24	일본	근로자의 날					
11.27	미국	PCE / 근원	9월	% YoY	2.7 / 2.9	- / -	- / -
	미국	추수감사절(~28일)					
	한국	금통위	11월	%	2.5	2.5	-
11.28	일본	산업생산	10월	% MoM	2.6	-0.5	▼

기준일: 25. 11. 21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로보티즈 (108490)

대전환의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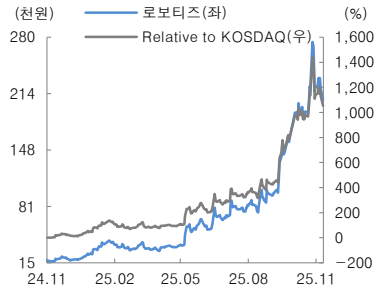
이지니

jin.lee@daishin.com

투자의견	BUY 신규
6개월 목표주가	270,000 신규
현재주가 (25.11.21)	191,800
	기계업종

KOSDAQ	902.67
시가총액	2,730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57%
자본금(보통주)	7십억원
52주 최고/최저	274,500원 / 16,682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650억원
외국인지분율	4.05%
주요주주	김병수 외 2 인 23.95% LG전자 6.60%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7.4	146.3	259.4	1,137.9
상대수익률	2.3	122.4	188.7	840.0



- 생산가능인구 하락하는 구간에서 제조업의 생산성을 일으킬 피지컬AI
- 제조업에서 피지컬 AI의 핵심 동력은 정밀한 움직임
- 로봇산업은 정부 주도 사업, 장기적으로 정책 드라이브 수혜 가능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270,000원 신규 제시

목표주가는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 가치를 반영하여 RIM 방식으로 산출. 베타값 0.8. 영구성장률 3%, 리스크프리미엄 4%를 반영. 회사는 하드웨어 부문에서 이익이 성장하고 있는 액추에이터 외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데이터 팩토리를 통한 AI Worker를 활성화하며 이익 성장의 저변을 넓힐 것으로 전망

생산가능인구 하락으로 산업의 견조한 성장 전망

글로벌 산업용 로봇시장은 25~30년까지 CAGR 13% 이상 성장 전망. 인구구조 변화와 숙련공 부족, 3D 업무 대체 수요가 맞물리며 물리적 조작 능력을 갖춘 피지컬 AI의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 피지컬 AI에게 정밀한 구동 능력을 요구함에 따라 관절 부분을 담당하는 액추에이터는 초소형부터 중형까지 장기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

정책 주도 하에 성장하는 로봇산업

로봇산업이 글로벌 정부 주도 육성 산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정책 드라이브 수혜 가능. 한국 정부는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2030년까지 로봇 100만대 보급을 목표로 대규모 정책 지원에 나섰음. 산업용, 특수 목적 로봇 보급, 핵심부품 국산화, 실증 인프라 확대, 공공조달 및 세액공제 등을 포함한 정책 주도형 수요 창출 산업으로 로봇이 진입함.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여건상 산업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제 현장에 투입하기 좋은 제반환경을 가졌지만 제도적인 한계에 부딪쳤었음. 정책적인 규제 완화와 지원이 동반된다면 이러한 병목현상이 해소되며 산업은 가파르게 성장 가능할 것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23A	2024A	2025F	2026F	2027F
매출액	29	30	37	45	76
영업이익	-5	-3	2	5	25
세전순이익	-3	-5	3	7	25
총당기순이익	-1	-3	2	5	20
지배지분순이익	-1	-3	3	6	20
EPS	-104	-233	187	378	1,394
PER	NA	NA	996.4	493.8	133.9
BPS	7,333	7,056	7,150	7,096	8,492
PBR	4.1	3.2	28.9	29.1	24.3
ROE	-1.5	-3.3	2.7	5.5	17.9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자료: 로보티즈,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